[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장 지글러

화요일 팀

1. 작가 소개

: 장 지글러는 1934년 스위스에서 태어났으며, 스위스의 대표적 사회학자이다. 스위스에서 사회민주당 의원으로서 활동하였으나, 『왜 검은 돈은 스위스로 몰리는가』를 발표 후 의원 면책 자격을 박탈 당하였으며, 그 이후 00년도부터 2008년까지 UN 인권위원회 식량 특별조사관으로 활동하였으며, 이후 UN 인권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중이다.

1. 책 소개

**:** 저자가 UN 인권위원회 식량 특별 조사관으로 활동하며 겪고, 마주쳤던 세계의 기아 현상과, 그 이면의 드러나는 이유들을 아들에게 말해주는 식으로 내용이 전개된다. 다소 터부시다 되던 기아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정치, 사회, 경제적인 근본적 원인을 살펴보고, 현 체재의 한계와 현재 기아의 실태를 나타내고 있다.

1. 내용 요약

: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는 세계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기아를 그 근본적 원인을 다각적으로 드러내며 전개된다. 첫번째 장에서는 소말리아가 다뤄지는데, 소말리아는 국토의 면적이 프랑스보다 프랑스보다 넓고, 비옥한 땅과, 목축할 지역이 있고, 인구밀도도 낮음에도 심각한 기아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된다. 이러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기아가 발생하는 이유는, 마땅한 정부가 들어서지 못한 채, 군벌간의 싸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소모적인 싸움으로 인해, 국제 식량 지원도 마땅치 못하며, 전쟁으로 인한 제반 시설의 파괴 등으로 기아가 발생하고 있음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그에 이은 두번째 장에서는 세계의 기아가 시달리는 인류가 몇 명인지, 그 분포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1999년 기준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의하면 만성적 영양실조의 해당하는 인구의 숫자는 무려 8억 2800명이며 이로인한 영구적 장애및 결손이 발생하는 인구에 대해서도 언급되고 있다. 기아가 가장 많은 지역은 아시아이며, 이외에도 아프리카, 동유럽, 중남미 등에서도 기아에 시달리는 인구가 많은많은 것으로 언급된다. 이어지는 세번째 장에서는 기아가 과연 자연도태인가?에 대한 의문을 다루고 있으며, 기아가 자연적인 산아제한이라고 여기는 멜서스의 이론등과 제국주의 사상으로 촉발된 인종차별적 사상의 위험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4장은 1장에 이어 소말리아의 현 상황에대해 다루고 있는데, 미국과 UN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으며, 사막화와 사회 제반시설의 정비미비, 정치, 사회적 불안, 군벌등의 갈등으로 인해 상황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음을 다루고 있다.

이어지는 5장에서는 이 책의 핵심을 꿰뚫는 기아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기아의 종류는 경제적 기아와 구조적 기아로 나뉘는데, 경제적 기아는 “돌발적이고 급격한 일과성의 경제적 위기로 발생하는 기아”를 의미하며, 자연재해, 전쟁으로 인한 급격한 기아상태를 의미한다. 이어서, 구조적 기아는 “장기간에 걸쳐 식량공급이 지체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책 전반에 걸쳐 언급되는 기아의 대부분은 5장에서 언급된 구조적 기아에 해당하며, 이는 해당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촉발된다.

6장에서는 경제적 기아의 해결의 어려움을 말하고 있다. 경제적 기아는 구조적 기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만성적임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식량의 조달과, 의료제반시설에 있는 한계를 지적하며, 단순한 식량 재분배로 해결되는 일이 아님을 의미한다.

7장과 8장에서는 구조적 기아와 그 실태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구조적 기아로 인해 대물림되는 가난과, 기아, 그리고 수없이 죽어나가는 유아들에 대한 언급이 드러난다.

9장부터 12장까지는 국제기구의 자금난과 더불어 식량 과잉공급에도 불구하고 왜 식량지원이 쉽지 않은데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여러 나라에서 국제기구에 기금을 제출함에도 불구하고, 기아문제가 쉽사리 해소되지 않는 것은 시장경제의 논리와, 대형 곡물상과 자본에 의해 흔들리는 곡물가격등을 언급하고 있다.

이어 13장에서는 터부시되는 기아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학교에서는 기아를 교육하는 것을 꺼리고 있으며, 기아가 실태에 비해 미화되는 것은 자본주의에 의해 각출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함임을 말하고있다.

14장에서는 뜨거운 화두가 하나 나온다. 구호단체가 식량을 지원하는 것이 정치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일부 단체의 주장이 나온다. 실제 르완다의 사례를 들며 식량 지원으로 인해 갈등이 장기화된 사례가 장에서 언급되며, 북한의 사례 또한 들어가며 가치 판단의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량 원조가 옳다는 주장을 펼친다. “그 어떤 대가도 한 아이의 생명에 비할 수는 없단다.” 인류애를 담은,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를 꿰뚫는 하나의 메시지가 나온다.

15장에서부터 17장까지는 기아가 정치, 경제적으로 이용되는 실태에 대한 내용이 언급된다. 15장에서는 기아를 압박수단으로 사용한 유고슬라비아와 미국의 사례가 나오며, 16장에서는 기업에 의한 기아의 악용, 17장에서는 국가에 의해 외면되고 악용되는 기아의 사례를 들며 북한과 가나의 지도자에 대한 사례가 나온다. 이후부터는 지속되는 사막화와 이로 인한 환경난민, 식민지 정책에 의해 촉발된 정치, 사회, 경제적 문제로 인한 구조적 기아의 실태에 대해 언급되며, 부르키나파소의 개혁가 상카라의 이야기를 통해 식량과 사회 설비의 자급자족을 통한 기아의 해결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결국 개혁가인 상카라도 시장논리와, 정치 사회적 문제로 인해 죽음을 맞이 하는 것을 언급한다. 이어 에필로그에서는 기아의 근본적 문제와 시장논리의 문제점, 그리고 기아의 점진적이며 근본적인 해결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인류애와 공동의 의식을 통한 기아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책이 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인류애에 호소하는 것에 가깝다. 하지만, 기아의 실태에 대해서도 다양한 사례와 통계를 통해 면밀하게 다뤄내고 있고, 인류애가 배제된 시장논리와 정치 사회적 이슈로 인해 촉발되는 구조적 기아가 과연 옳은 것인가? 에 대한 결코 가볍지 않은 화두를 던진다.